

트럼프 “화염” 발언 백악관 수위 조절

대북 접근법 외교로 전환
안보 수장들 전쟁설 부인
美 국무·국방 “협상 용의”
WSJ에 공동 기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이후 강경일변도로 돌리는 듯했던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는 기류다.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 군 고위 인사들이 13일(현지시간) 잇따라 전쟁 임박설을 부인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이로써 북한의 ‘팜 포위사격’ 위협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해결책 장전 완료’ 경고에 따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던 한반도 긴장이 풀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안보·정보 당

국의 수장들조차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김을 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일부에선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 문턱에 있다고 사실상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간 긴장 관계 고조를 미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 임박한 것은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이성적이고 불리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인물”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같은날 ABC방송에 출연,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과 비교한다면 가까워졌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쟁 임박 가능성을 일축했다. 방한 중인 조지프 터퍼드 합참의장도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우리 모두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적 해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터퍼드 합참의장은 전날 한국행 항공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지도자로서 나는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실행 가능한 군사옵션을 갖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런(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실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신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

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나 한국의 조속한 재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를 찾거나 북한의 호전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있는, 오랜 기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해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한이 전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충돌을 막아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틸러슨·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권의 행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군사적 선택이 그 뒤에 있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도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의 장전’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되풀이하듯 “미군은 매일 장전됐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북한 관 사격 위협에도 관광 피해 없어

최근 북한의 팜 포위사격 위협에도 한국인들의 대규모 여행 취소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

한은 ‘팜 포위사격 검토’로 맞대응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과 관의 여행사들은 북한의 팜 사격 위협 이후 한국인들의 문의를 많이 받았으나 실제 여행을 취소한 사람은 소수라고 전했다. 팜 관광청은 여행 예약 취소 사례가 있

다고 파악했으나, 성수기인 8월에도 여전히 팜 관광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투어 관계자 원형진씨는 “많은 고객이 우려 섞인 문의를 했지만 수수료를 묻고 여행을 취소할 정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북한은 매년 한두 번씩 긴장을 고조해 관광객들이 둔감해진 것 같다”고 AP에 전했다. WP도 “한국인들은 북한 위협에 단련됐으며, 60년 이상 전쟁 상태로 살면서 정

기적인 위협을 견뎌왔다”며 이번 북한의 경고가 한국인의 팜 여행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지난주 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읽힌 팜 관광 관련 게시물은 북한 상황에 대한 글이 아닌 저렴한 관광객용 와이파이가 광고, 아웃렛 할인 정보 등이었다고 전했다. 인구 16만 명의 미국령 섬인 팜은 방문객 중 한국인 비중은 46% 정도다. /연합뉴스

서아프리카 관광지서 총격테러... 17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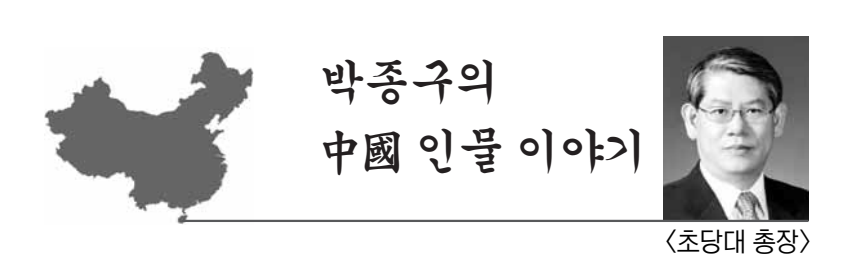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서 또 테러 참극이 벌어졌다. 레미 단드지누 부르키나파소 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수도 와가두구에 있는 터키식당에서 발생한 총기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14일 밝혔다. 단드지누 장관은 부상자가 8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자들의 국적은 다양했고, 사망자 가운데 프랑스 국적자 1명이 포함됐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기 공격은 13일 와가두구의 터키식당 ‘아지즈 이스탄불’에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침투하면서 발생했다. 총성이 울린 시각은 오후 9시경이었으나 몇 시간 뒤 14일 새벽까지도 총성이 계속됐다. 외국인들이 붐비는 와가두구의 변화가에서는 2016년 1월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 3명이 카페를



공격, 30명을 살해하는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마그레바 알카에다’가 배후를 자처했으며 범인들이 외국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외국인 지하디스트에 의한 테러보다 자생 테러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오랫동안 극단주의에 시달려왔다. 북쪽 국경에는 최근 군인, 민간인 사상자를 낸 테러들의 배후를 자처한 급진화한 성직자 이브라힘 말람 디코의 근거지가 있다. /연합뉴스



꽃을 든 소년 4살 어린이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 반대 집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박살내자’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다. 전날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살라츠빌 유혈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책임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5 맹장 위치경덕

위지경덕(尉遲敬德, 585-658)은 삼국 시대 출신으로 자는 경덕이다. 선비족 출신으로 이세민 휘하에 들어가 군공을 세웠다. 후일 능연각 24인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수말 혼란기에 산시 지방의 군벌 유무주 밑에서 활약했다. 이세민이 유무주를 정벌하자 투항했다. 이후 이세민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 공을 세웠다. 두견덕과의 싸움에서 뛰어난 기마술을 보여주었다. 세민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활을 들더니 그대는 긴 창을 들고 따르라, 나는 원거리 공격을 하고 그대는 단거리 공격을 맡으면 실사백만대군이 오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등의 맹활약으로 적군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적의 수급을 일찍이 제왕 이원길은 말을 질주해 창을 잘 던졌다. 그가 창을 잘 피한다면 소리를 듣고 친히 시험했는데 세 번이나 창을 빼앗겼다. 이로 인해 이원길은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세민이 그를 중용한 것은 충성심 이외에 뛰어난 기마술 때문이다. 그는 진속보 등과 함께 가장 뛰어난 기마장수로 인정 받았다. 현무문의 공으로 우무후대장군, 개부의동삼사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자신의 무공을 과시한 까닭에 종신들과 사기가 원만치 않았다. 정관 6년(632년) 궁중 연회에 참여했는데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너는 무슨 공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임성왕 이도종이 이를 보고 화해를 시키려 했는데 그가 주먹으로 도장을 때려 눈에 큰 상처를 입혔다. 태

당대 최고 기마장수... ‘현무문의 변’ 큰 공

300개나 얻고 적장 은추, 석창을 생포했다. 왕세총과의 싸움에서도 큰 공을 세웠는데 항복한 유무주의 부하들이 모두 배반하고 떠나갔다. 세민측의 장군들은 그를 의심해 군대안에 가두었다. 좌복야 굴돈동은 “위지경덕은 날세고 용감해 그를 가두어서 반드시 원망할 것인데 남겨두면 후환이 될까 걱정이 다. 끝내 그를 죽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청하였다. 세민은 그를 석방하고 금을 하사하며 말했다. “대장부의 뜻과 기개는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혐의는 마음에 두지 말라. 나는 충성스럽고 훌륭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황태자 건성과 세민파의 갈등이 심화되어 현무문의 정변으로 이어졌다. 세민은 형제들을 제거하는 계획에 소극적이었다. “형제간에 서로 해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며 주저했다. 그러나 결국 장손무기, 방현령, 위지경덕 등의 주장에 따라 선공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세민이 활을 쏘아 형 건성을 죽였다. 세민의 말이 달리다가 나무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다. 동생 이원길도 급히 말을 달려 세민에게 활 시위를 당겼다. 위기상황에서 위지경덕이 고향지며 나타나 활을 쏘아 죽여 버렸다. 그는 이견성과 이원길의 목을 베어 높이 쳐들어 황태자와 부하들의 전의를 상실케 만들었다.

종은 그에게 “집이 한 고조 유방이 공신을 주멸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들과 함께 부귀를 보존해 자손들에게도 끊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경은 자주 법을 어기는구나. 이제야 한신과 팽월이 죽은 것이 고조의 허물이 아님을 알았다. 스스로를 두고 삼가해 후회할 것인데 남겨두면 후환이 될까 걱정이 다. 끝내 그를 죽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청하였다. 세민은 그를 석방하고 금을 하사하며 말했다. “대장부의 뜻과 기개는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혐의는 마음에 두지 말라. 나는 충성스럽고 훌륭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는 태종의 요동정변을 반대했다. 상소를 올려 “변방 귀퉁이의 작은 이적은 만승을 수고롭게 하기에는 부족하니, 바라건대 일부 군사를 파견해 정벌하여도 무방합니다”고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658년 세상을 떠났다. 말년에 한가하게 살면서 연못과 누대를 짓고 명상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며 소일했다.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